

완도군, 바다와 공존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조성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이행 로드맵 2100년까지 평균 5.6도 상승 전망 재해 위험 감축 대응책 마련 목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전환 실현

완도군이 이상 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규모와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바다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10년 대비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5.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 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부터 추진해 지난달 16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 뉴딜 추진의 이행 주체로서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등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 중장기 계

획은 '바다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도시, 완도'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만 9000톤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분야별 대응 전략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에 따른 감축 목표 수립,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 등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해상 풍력, 태양광 확대 등 신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전환,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농수산업 실현, 자원 순

환, 탄소 흡수원 조성 등을 담았다.

군은 계획을 바탕으로 바다목장 및 바다 숲 조성,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강화 등 3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 위기 대응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5년 도내에서 최초로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농기계임대사업 북부분소 개소 무안군,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무안군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제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신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2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정길수 도의원, 군의원, 농업관련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는 총 31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부지면적 9945㎡, 보관창고 492㎡, 사무실과 농기계 교육실습장을 갖추고 퇴비살포기 등 57종 172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그동안 농협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매년 임대수요가 늘어나면서 장소가 좁고 불편했다"며 "북부분소 신축 이전으로 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진도소방서, 안전관리 강화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최초 신고 시 신고자에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잡채툇김밥' 편의점 출시 신안군, 전직원 시식회

신안군은 지난 4월에 치러진 2024신안세계김밥페스타 수상작을 편의점 제품으로 출시해 지난달 30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전직원 시식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출시된 김밥은 '잡채툇김밥'으로 이마트24가 상품화해 전국 6000여 개의 편의점에서 지난달 26일 출시했다.

잡채툇김밥은 건조 톳으로 밥을 지어 맛과 영양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잡채와 톳의 조화를 살린 제품이다. 올해 4월27일 열린 신안세계김밥페스타 김밥경연대회에서 톳을 활용한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마트24 특별상으로 선정된 김밥을 제품화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기업과 협업을 추진한 지역 축제를 통하여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을 통하여 기업은 이윤을, 지역은 특산물 홍보를,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코로나19 예방·대응체계 강화 영암군보건소

영암군보건소가 8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됐지만, 6월 말부터 전국 환자 증가하고, 7월말까지 전남 50대 이상 환자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영암군보건소는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에 주 1회 환자발생보고를 요청했고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 환자 10인 이상 발생할 경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이가 코로나19 역학조사, 집중관리, 모니터링 등 대응 체계 제정비에 나선다.

코로나19 상황 전파와 함께 영암군보건소는 소아 청소년의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군 감염증 환자 증가 상황을 알리며 영암군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기침 예절 준수, 올바른 손씻기 시행 등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방법을 영암군홈페이지, 영암e랑, 공식 SNS 등에 홍보하고 나섰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하고, 확진자는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목포시,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목포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구입·설치비를 지원한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 등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다.

올해 사업량은 67대로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 장비 구입·설치비용을 1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상자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3일 완도군 관계자들이 주민, 관광객 등 100여명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완도군이 지난 3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주민, 관광객 등 10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한날한시, 배우고 즐겁' 캠페인을 진행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건강 걷기 △장바구니, 머그 컵,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폐건전지 수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잔반 줄이기 △대기 전력 줄이기 △자원 재활용 하기 등 탄소중립 실천 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신지 명사십리 해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워 오면 해산물과 연관된 스낵으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한편 '한날한시, 배우고 즐겁' 캠페인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과 COPP33(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전라남도 유치를 위해 완도, 여수, 곡성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씨월드고속웨리(주)가 5일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2000만원 장학금을 기탁했다.

진도군 제공

씨월드고속웨리,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진도↔추자↔제주, 목포↔제주를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웨리(주)(회장 이혁영)가 5일 진도군청을 방문해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포시에 성

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목포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도 3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목포 인근의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제주도 사람투어를 20회째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남지방경찰청 봄봄봄 지원단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혁영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진도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수 있길 바란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